

## 不成文과 한자 자형 변화에 관한 연구

오정균\* · 강혜근\*\*

### 목 차

1. 서론
2. 갑골문에서만 보이는 경우
3. 갑골문과 금문에서만 보이는 경우
4. 갑골문과 금문, 전서에 보이는 경우
  - 4.1 상형성不成文
  - 4.2 지사성不成文
  - 4.3 상형성/지사성不成文
5. 금문과 전서에 보이는 경우
6. 결론

### 국문초록

한자는 갑골문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형변화가 있었는데, 본고는 不成文을 중심으로 갑골문에서 전서까지 한자 자형 변화를 분석하였다. 不成文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구체적인 사물의 형체를 본뜬 ‘상형성不成文’ 2)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으로 본뜨기 어려운 형체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지사성不成文’. 본고에서는 합체상형(果, 胃, 眉)이나 합체지사(本, 末, 亦)에 있는 不成文은 갑골문부터 전서까지 거의 不成文인 상태로 유지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에 10字의 不成文을 분석해 본 결과, 갑골문에서 전서까지 ‘상형성不成文’은 成文(義符나 聲符)으로 대체하거나, 聲符를 추가하였다. 그 이유는 成文이 不成文보다 뜻을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자형의 簡化라는 측면에서 보면, 利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생(제1저자)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자의 경우는 자형이 갑골문 𠂇[흙(土)에서 자라난 벼(禾) 한 단을 손(又)으로 움켜잡고 칼(刀)로 베는 모습]에서 전서 𠂇자로 簡化됨에 따라, 그 본의도 ‘이득’이라는 뜻에서 『說文解字』의 분석처럼 ‘날카롭다’라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변한 경우도 있었다.

**키워드:** 不成文, 상형성不成文, 지사성不成文, 자형, 변화

## 1. 서론

不成文이란 ‘文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漢字는 形音義 삼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成文이라고 하고, 삼요소 중에서 품이나 義가 빠지면 不成文이라고 한다. 不成文은 일반적으로 품이 결여되어 있다. 비록 義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不成文 주변의 자형 환경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不成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물의 형체를 본 뜬 ‘상형성不成文’과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으로 본뜨기 어려운 형체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지사성不成文’이 있다.

본고에서는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존재하던 不成文이 전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갑골문부터 전서까지의 자형 변화 추이를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不成文은 독립된 의미나 발음은 없지만, 합체상형이나 합체지사에서는 字義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합체상형인 果자를 예를 들면, 𠂇(갑골문)과 𠂇(금문), 𠂇(전서)에서 不成文 부분은 ‘과일의 모양’으로 成文인 木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합체지사인 亦자를 예를 들면, 𠂇(갑골문)과 𠂇(금문), 𠂇(전서)에서 不成文 부분은 ‘겨드랑이 위치를 지시하는 부호’로 成文인 大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成文은 본고에서는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체상형과 합체지사의 不成文은 갑골문에서 전서까지 거의 不成文 그대로 존재하여,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不成文 중에는 ‘잉여기호’도 있는데, 물론 본고의 연구대상은 아니다. 김은희(2009)는 자형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甲骨文 ‘잉여기호’의 변화를 ‘消失’과 ‘傳承’의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sup>1)</sup> 그런데 그중에는 생각하기에 따라, ‘잉여’라고 할 수 없는 不成文도 있어 이 부분은 본고에서 다시 분석해보려고 한다.

우선 不成文의 존재와 소실을 중심으로, 不成文이 ‘갑골문에서만 보이는 경우’, ‘갑골문과 금문에서만 보이는 경우’, ‘갑골문과 금문, 전서에 보이는 경우’, ‘금문과 전서에 보이는 경우’로 나누어 자형 변천에 대해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 2. 갑골문에서만 보이는 경우





갑골문에서만 보이고 金文에서는 사라진 不成文은 모두가 상형성不成文이므로, 따로 구분하여 목차를 두고 명시하지 않았다. 네 가지 예 모두가 成文(義符 또는 聲符)으로 대체되었다.







### 1) 稻(도)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稻	①  ② 	①  ②  ③ 		稻
不成文→成文	①  ②  (容器) 상형성不成文	①  ②  ③ 		稻
		成文(聲符) 稻(굽어낼 요)		

1) 김은희, 「甲骨文 ‘잉여기호(점·필선)’의 변화와 『說文解字』의 字形 재분석」, 『중국언어 연구』 제29권, 한국중국어학회, 2009

- 갑골문: ①  =  (米, 쌀) +  (상형성不成文)  
 ②  =  (米의 간체) +  (상형성不成文)

『한자연변500례』에서는 “ (稻의 갑골문)의 윗부분은 米자이며, 아래 부분은 쌀을 담은 ‘바구니’ 모양의 물건이다”라고 하였다.<sup>2)</sup> 또한 『갑골문자전』에서는 “은  (米미)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쌀이 그릇 안에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였다.<sup>3)</sup>

- 금문: ①  =  (畎언) +  (聲符, 畎요) +  (米미, 쌀)  
 ②  從禾, 畎聲. 形聲字  
 ③  從米, 畎聲. 形聲字

『한자연변500례』에서는 ① 에 대하여 “금문의 윗부분에는 깃발(, 畎언)이 있는데, 바람으로 낱알을 까부르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아랫부분은 손으로 쌀을 精米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였다.<sup>4)</sup> 금문 ① 의 자형을 분석해 보면,  (畎언) +  (畎요) +  (米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畎언)은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즉 ‘깃발이 나부낀다’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것이고, 바람 불 때 곡식의 쪽정이를 날려 보내고 낱알만 걸러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자연변500례』에서는 “아랫부분은 손으로 쌀을 精米하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畎요) 자는 ‘절구(臼)에서 도정한 쌀을 손(爪)으로 퍼내는 모양’으로 ‘퍼내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동시

2) 李樂毅, 『漢字演變五百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3, 57쪽: “甲骨文‘稻’字上部是‘米’字(參見‘米’字條), 下部是裝稻米的筐形物。”

3)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8, 780쪽: “從米從, 象米在器中之形。”

4) 李樂毅, 『漢字演變五百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3, 57쪽: “金文上部有旗, 表示迎風打稻; 并有用手舂米狀。”

에 聲符 역할도 하고 있다. 절구(臼) 아래에는 米(米)가 있는데, 이는 𥝱(米)의 省形이라고 할 수 있다. ② 稻는 형부 禾와 성부 臼로 구성된 形聲字이며, ③ 𥝱은 형부 米와 성부 臼로 구성된 形聲字이다.

전서: 稻 = 禾(禾화, 벼) + 臼(聲符, 臼요, 굵어내다)

『說文解字』에서는 “稻는 ‘벼’라는 뜻이다. 자형 구조는 形符 ‘禾’와 聲符 ‘臼(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다.<sup>5)</sup>

갑골문에서 쌀을 담은 容器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상형성不成文’ ① 𥝱과 ② 𥝱은 금문에 와서는 ① 𥝱 ② 稻 ③ 𥝱과 같이 聲符 臼(굵어낼 요)자로 대체되었다. 금문②는 전서(稻)와 해서로 계승되었다. 금문③은 從米, 臼聲으로 禾대신 米자를 사용한 이체자라고 할 수 있다.

## 2) 雹(박)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雹		缺		雹
不成文→成文	𩇛(우박) 상형성不成文			包
			成文(聲符) 包(포)	

갑골문: 雹 = 雨(雨자의 省形) + 𩇛(상형성不成文)

𩇛(雹)는 雨(雨)와 𩇛(상형성不成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sup>6)</sup> 하지만

5) 『說文解字』: “稻, 稌也. 從禾, 臼聲.”

6) (東漢)許慎, 徐秀琴 주편, 『圖解《說文解字》: 畫說漢字』, 北京聯合出版公司, 2022, 19쪽: “甲骨文的‘雹’字, 上方是‘雨’字, 下方的三個小圓圈, 就像冰雹的形狀.”

사실은 𩇛는 雨자의 省形이라고 볼 수도 있고, 霤(霤) 자는 雨(雨)와 같이 독체상형자로 볼 수도 있다. 또 『甲骨文字典』에서는 “자형구조는 ‘雨’자 와 𩇛(상형성不成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𩇛는 큰 빗방울로 ‘호우’라는 뜻이다”라고도 한다.<sup>7)</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圖解《說文解字》：畫說漢字』와 漢典 등의 견해와 같이 ‘우박’이라고 생각한다.

고문: 𩇛 = 雨(雨, 우) + 𩇛(상형성不成文)  
 전서: 霤 = 雨(雨, 우) + 𩇛(聲符, 包포, 감싸다)

『說文解字』에서는 “霤자는 ‘우박이 내린다’는 뜻이며, 자형구조는 形符 ‘雨’와 聲符 ‘包(포)’로 구성되어 있다. 𩇛는 霤자의 고문이다”라고 하였다.<sup>8)</sup> 𩇛는 마치 從雨, 從晶처럼 보이지만 晶은 晶자가 아니고, 갑골문의 𩇛를 대체한 ‘우박’을 나타내는 상형성不成文이다.

갑골문에서 우박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상형성不成文’ 𩇛는 사라지고, 전서에 와서는 聲符 包(포)자로 대체되었다.

### 3) 糞(분)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糞	① 𩇛 ② 𩇛	糞	糞	糞
분	① 𩇛 ② 𩇛(오물이나 똥)	分	分	米
不成文→成文	상형성不成文	成文(屎의 省形)		成文





갑골문: ① 𩇛 = 𩇛(키) + 𩇛(상형성不成文) + 𩇛(帚, 빗자루) + 𩇛(두 손)  
 ② 𩇛 = 𩇛(키) + 𩇛(오물이나 똥, 상형성不成文) + 𩇛(두 손)






7)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8, 1244쪽: “從雨從𩇛, 𩇛象大雨點, 會大雨之意.”

8) 『說文解字』: “霤, 雨冰也. 從雨, 包聲. 𩇛, 古文霤.”

갑골문 ‘糞’자의 “윗부분에 있는 세 개의 점은 ‘오물’을 뜻하며, 자형의 가운데 있는 것은 ‘키’의 모양이고, 아랫부분에는 두 손이 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두 손으로 오물을 청소하여 키에 담아 버리는 것으로 ‘糞’의 본의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였다.<sup>9)</sup>

금문:  =  (屎의 省形) +  (𠂇, 키) +  (𠂇, 두 손으로 들다)  
 전서:  =  (𠂇변) +  (𠂇, 키) +  (𠂇, 두 손으로 들다)

금문은 전서와 자형구조가 거의 같다. 『說文解字』에서는 “糞(분)은 ‘청소하다(똥을 치우다)’라는 뜻이다. 자형구조는 𠂇(공, 두 손)과 𠂇(반, 키), 𠂇(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형은 ‘두 손(𠂇공)으로 키(𠂇반)를 밀어 𠂇(糞便)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官溥는 ‘米자와 비슷하지만, 米자가 아니고 矢字이다’”라고 하였다.<sup>10)</sup> 矢는 屎의 假借라고 한다. 금문 의 은 屎의 省形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서 의 는 𠂇(변)자로 보인다.

갑골문①, ②에서 나타나고 있는 ,  (똥 또는 오물, 상형성不成文)은 금문에 이르러 사라지고,  (屎의 省形)로 대체되었고, 전서에서는 𠂇(변)으로 변화하였다. 갑골문의  (其기, 키)는 금문과 전서에서는  (𠂇반, 키)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해서에 와서는 米와 𠂇로 구성된 ‘쌀이 변하여 달라진 것, 즉 똥(을 치우다)’이라는 뜻을 가진 會意字로 변화하였다.

#### 4) 祭(제)

9) (東漢)許慎, 徐秀琴 주편, 『圖解《說文解字》：畫說漢字』, 北京聯合出版公司, 2022, 98쪽:  
 “甲骨文的‘糞’, 字形上方的三點, 代表污垢, 中間是個簸箕的形狀, 下方是兩個‘手’形, 合在一起就是用雙手將污穢清掃乾淨, 放入簸箕中倒掉, 這也正呼應了‘糞’的本義。”

10) 『說文解字』: “糞, 棄除也. 從𠂇推 𠂇棄 𠂇(변)也. 官溥說: “似米而非米者, 矢字.”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표
祭(제사)	①	②			祭	14
不成文→成文	① 상형성不成文	②			示	
		成文				

갑골문: ① = (肉, 고기) + (又, 손) + (상형성不成文)  
 ② = (示, 두다) + (肉, 고기) + (又, 손)

『한자연변500례』에서는 ② 를 예시하면서, “갑골문의 어떤 자형은 示자가 없으며, ‘땀물이 떨어지는 고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뜻은 같다”고 하였다.<sup>11)</sup> 또 『갑골문자전』에서는 “갑골문 祭자는 본래 示가 없었으며, 示자는 義符로 나중에 추가되었다. 갑골문의 祭자는 손으로 (肉)을 들고 있다. 또 어떤 자형은 여러 개의 점()으로 땀방울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사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12)</sup> 그런데 점()을 임의로 부가된 ‘잉여기호’라서 후에 소실됐다는 주장도 있다.<sup>13)</sup> 그러나 『갑골문자전』을 살펴보면, 10개의 갑골문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중 9개가 여러 개의 점이 있고, 1개만이 점이 없다. 이것은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자형이라는 뜻이며, ‘잉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자형 변천 과정을 자세히 보면, 『갑골문자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사’라는 뜻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示(제단)자를 추가하면서, 점()이 간화된 것으로 보는 편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

11) 李樂毅, 『漢字演變五百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3, 152쪽: “甲骨文有的字形不從‘示’, 像手持滴血的肉塊, 意思是一樣的。”

12)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8, 18쪽: “甲骨文祭不從示, 示爲後加之意符. 甲骨文祭字以手持, 即肉. 或以數量不等之點象血點之形, 會祭祀之意.”

13) 김은희, 「甲骨文 ‘잉여기호(점·필선)’의 변화와 『說文解字』의 字形 재분석」, 『중국언어연구』 제29권, 한국중국어학회, 2009, 247쪽



금문: 祭 = 示(示, 제단) + 肉(肉, 고기) + 又(又, 우)  
 전서: 祭 = 示(示, 제단) + 肉(肉, 고기) + 又(又, 우)

금문과 전서의 자형구조는 갑골문 ②와 같다. 『說文解字』에서는 “祭는 ‘제사’라는 뜻이다. 자형은 示를 부수로 하며, 又(손)로 肉(고기)을 잡고 있다”라고 하였다.<sup>14)</sup>

갑골문 ①의 ‘상형성不成文(상형성不成文)’은 사라지고 갑골문 ②와 같이 成文 示(시)로 대체되어, 금문, 전서로 계속 이어진다.

### 3. 갑골문과 금문에서만 보이는 경우

갑골문과 금문에서만 보이고 전서에서 사라진 不成文도 ‘2. 갑골문에서만 보이는 경우’와 같이 모두가 상형성不成文이므로, 따로 구분하여 목차를 두고 명시하지 않았다. 1)利(리)는 不成文이 사라졌다.

#### 1) 利(리)

利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①	②	③	利	利	利
不成文 →소실	土+又+禾+刀	禾+刀	③ 禾(날알)	利(날알)	不成文이 사라짐	
	成文	成文	상형성不成文			

갑골문: ① = 土(土, 흙) + 又(又, 손) + 禾(禾, 벼) + 刀(刀, 칼)  
 ② = 禾(禾, 벼) + 刀(刀, 칼)  
 ③ = 禾(禾, 벼) + 刀(刀, 칼) + 禾(날알, 상형성不成文)

14) 『說文解字』: “祭, 祭祀也. 從示, 以手持肉.”

①利의 자형구조에 대하여 『중문형음의종합대사전』에서는 “갑골문 利자는 秉자(左上 부분의 又와 중간부분의 禾)와 刀자(오른쪽)와 土자(左下 부분)로 구성되어 있다. 匕 한 단을 손으로 움켜잡고 칼로 베는 모습이다. 土는 匕(禾)가 흙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며, ‘匕를 한 단 수확한 것이 利(이득)’라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였다.<sup>15)</sup> ①利과 ②利의 자형 구조에는 不成文이 존재하지 않는다. 『甲骨文字典』에서는 ③利의 자형에 대하여 “利의 위에 점이 있는 자형도 있는데, 이 점들은 땅을 갈 때 튀진 흙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였다.<sup>16)</sup> 그러나 앞에서 “匕를 수확한 것이 利(이득)이라는 뜻을 나타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래 林義光의 주장처럼 ‘날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금문: 利 = 禾(禾화, 匕) + 刀(刀, 칼) + 土(날알, 상형성不成文)

『중문형음의종합대사전』에서는 林義光의 견해를 인용하여, “利의 본의는 贏(이득)이며 자형 구조는 刀(도)와 禾(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로 곡식을 베는 것이다. …… 禾(화) 사이에 있는 점(●)은 ‘날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였다.<sup>17)</sup>

전서: 利 = 禾(禾화, 匕) + 刀(刀, 칼)

『說文解字』에서는 “利는 날카롭다(銛)는 뜻이다”라고 하였다.<sup>18)</sup> 전서에

15) 高樹藩, 『中文形音意綜合大字典』, 中華書局出版, 1989, 144쪽: “甲文利: 中從秉(左上爲又中爲禾)右從刀, 下從土; 秉爲束禾象以刀割取, 其從土乃示禾爲土所出, 而會所得束禾爲利之意.”

16)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8, 471쪽: “利上或有點乃象翻起之泥土.”

17) 高樹藩, 『中文形音意綜合大字典』, 中華書局出版, 1989, 144쪽: “林義光氏以爲‘利本義爲‘贏’從刀刈禾, ……(禾)中點象穀實.”

서는 不成文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段玉裁는 銛(섬)자의 뜻에 대하여, 『說文解字注』에서 “銛(섬)은 ‘가래’의 일종이다. ‘가래’라는 뜻에서 引伸되어 ‘날카롭다(銛利)’라는 뜻이 되었고, ‘날카롭다(銛利)’에서 引伸되어 ‘이롭다(利)’라는 뜻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sup>19)</sup> 段玉裁는 銛(섬)자의 뜻이 ‘날카롭다’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利(리)자는 주로 ‘이롭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갑골문 ①~~利~~ ③~~利~~와 금문 利의 자형 분석을 보면, 본래 뜻은 ‘이득’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변천과정을 모르고, 단지 禾(화)와 丩(도)로 구성된 전서의 자형만 보고 字義를 해석한다면, ‘벼(禾)를 잘 벨만큼 칼(丩)이 날카롭다(예리하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자형의 簡化로 생긴 본의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 오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4. 갑골문과 금문, 전서에 보이는 경우

이 경우는 앞의 2장, 3장과는 달리, 상형성不成文과 지사성不成文이 모두 보인다. 심지어 어떤 갑골문은 다양한 異體字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갑골문인데 상형성不成文이 있는 자형도 있고 지사성不成文이 있는 자형도 있다.

##### 4.1 상형성不成文

###### 1) 粟(오)

18) 『說文解字』: “利, 銛也.”

19) 段玉裁注: “銛者, 番屬. 引伸爲銛利字. 銛利引伸爲凡利害之利.”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要				要
不成文 → 不成文				×
	상형성不成文			

갑골문: 𠄎 = 𠄎(臼국, 두 손) + 𠄎(女) + 日(머리, 상형성不成文)

『한자연변500례』에서는 “갑골문 要자는 한 여자가 두 손을 양쪽 허리에 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였다.<sup>20)</sup>

금문: 𠄎 = 𠄎(臼국) + 𠄎(女) + 日(머리, 상형성不成文)

『한자연변500례』에서는 “여자의 머리 부분은 갑골문에서도 ‘日’자와 비슷했는데, 금문 이후에는 그 오차가 더욱 심해져서 目이나 西자로 변했다”라고 하였다.<sup>21)</sup>

전서: 𠄎 = 𠄎(臼) + 𠄎(交자가 省略된 자형)

『說文解字』에서는 “몸의 가운데 부분이다. 사람이 두 손(臼)으로 허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形符는 臼(국)이며, 聲符는 交자가 일부 생략된 자형(𠄎)이다”라고 하였다.<sup>22)</sup> 𠄎자는 交(交, 楚系簡帛文字)와 비슷하지만, 𠄎(갑골문)과 𠄎(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여자’를 나타내는 상형성不成文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段玉裁도 『說文解字注』에서 전서를 𠄎로 제시하고, 聲符의 존재를 부정하여 “交省聲”을 삭제하고, “𠄎, 身中也. 象人與

20) 李樂毅, 『漢字演變五百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3, 404쪽: “甲骨文‘要’字像一個女子雙手叉腰的樣子.”

21) 李樂毅, 『漢字演變五百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3, 404쪽: “女子的頭部在甲骨文時已變得像‘日’字, 金文以後更訛變為‘目’或‘西’.”

22) 『說文解字』 “身中也. 象人要自臼之形. 從臼, 交省聲.”

(要)自白之形. 從白”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갑골문의 ‘𠂔(成文)+𠂔(不成文)’과 금문의 ‘𠂔(成文)+𠂔(不成文)’ 두 개 부분이 전서에 와서는 상형성不成文 𠂔로 합쳐졌다.

## 4.2 지사성不成文

### 1) 𠂔[niè](말 많을 녀)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𠂔	𠂔	缺	𠂔	𠂔(녀)
不成文 → 不成文	𠂔		𠂔	山
	지사성不成文		지사성不成文	지사성不成文

갑골문: 𠂔 = 𠂔(三口) + 𠂔(지사성不成文)

전서: 𠂔 = 𠂔(三口) + 𠂔(지사성不成文)

『說文解字』에서는 “𠂔(녀)은 ‘말수가 많다’는 뜻이다. 자형 구조는 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였다.<sup>23)</sup> 이때 발음은 尼輒切로 ‘녀’이다. 『說文解字』는 𠂔(녀)을 從品이라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마땅히 “從三口, 以山相連”라고 분석해야, “口(입 구)자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사성不成文 𠂔으로 口(입 구)자 세 개를 연결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말수가 많다’는 뜻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𠂔(녀)자와 매우 유사한 자형이 있는데, 바로 𠂔(바위 암)자이다. 『說文解字』에서는 “𠂔(암)은 ‘산에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자형 구조는 𠂔(山)과 𠂔으로 구성 되어있다”라고 하였다.<sup>24)</sup> 이 𠂔(암)자 역시 從品보다는 ‘山’은 ‘바

23) 『說文解字』: “多言也. 從品相連.”












위' 모양을 나타내는 상형성不成文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서 𩇛은 𩇛(말 많을 녀)자이고, 전서 𩇛은 𩇛(바위 암)이다. 해서체로는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𩇛(녀)와 𩇛(암)을 자세히 보면, 山의 가운데 획이 𩇛(녀)자가 𩇛(암)자보다 오히려 조금 길다.

### 4.3 상형성/지사성不成文

#### 1) 雷(뢰)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雷	①  ②  ③  ④ 	⑤ 			雷
不成文 →不成文	①. ②. ③. ④. 	⑤  (바퀴)	 (바퀴)	 (바퀴)	田(바퀴)
	지사성不成文		상형성不成文		

- 갑골문: ①  =  (电, 번개 전) + ① (지사성不成文)  
 ②  =  (电, 번개 전) + ② (지사성不成文)  
 ③  =  (电, 번개 전) + ③ (지사성不成文)  
 ④  =  (电, 번개 전) + ④ (지사성不成文)  
 ⑤  =  (电, 번개 전) +  (상형성不成文, 바퀴모양)

위의 갑골문 중에서 ⑤의不成文 는 ①, ②, ③, ④와 다르게 '수레바퀴 모양'으로 '커다란 소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상형성不成文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갑골문不成文(①. ②. ③. ④.)은 보이지 않는 '소리'를 추상적인 기호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사성不成文이라고 할 수 있다. 徐中舒는 갑골문 雷자     등을 예로 들고, “ (申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번개'

24) 『說文解字』: “山巖也. 從山, 品.”

라는 뜻이다. 번개가 치면 천둥소리가 난다. …… 자형 중 ㄷ, ㄹ, ㅁ 등은 ‘천둥소리’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하였다.<sup>25)</sup>

금문: 𩇛 = 𩇛(电, 번개 전) + 𩇛(상형성不成文, 바퀴모양)

금문 자형은 갑골문 ⑤와 같은 방식으로, 𩇛(수레바퀴 모양)으로 ‘커다란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sup>26)</sup>

전서: 𩇛 = 雨(雨) + 𩇛(상형성不成文, 바퀴모양)

고문: ① 𩇛 = 雨(雨) + 𩇛(상형성不成文, 바퀴모양)

② 𩇛 = 回(회) + 𩇛(상형성不成文, 바퀴모양)

주문: 𩇛 = 雨(雨) + 𩇛(고문 雷)

『說文解字』에서는 “음과 양이 서로 부딪혀 천둥과 비가 생기며, 만물이 생장한다. 자형구조는 雨로 구성되어 있으며, 𩇛는 돌아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하였다.<sup>27)</sup> 『說文解字』에 수록된 고문과 주문을 모두 살펴보면, 특히 籀文(주문) 𩇛을 예로 분석해 보면, ‘비(雨) 올 때 전차 바퀴(𩇛)가 굴러갈(回) 때처럼 나는 커다란 소리’가 ‘천둥’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서 𩇛의 𩇛은 ‘바퀴 모양’임에 틀림없다.

갑골문의 지사성不成文(①, ②, ③, ④)은 갑골문 ⑤의 ‘바퀴 모양’ 𩇛 처럼 금문과 전서도 상형성不成文(𩇛, 𩇛)으로 변화하였다.

25)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8, 1241쪽: “從(申), 申即電, 電相擊而有雷聲, …… 又以實點作 ㄷ 形, 小圓點作 ㄹ 形或 ㅁ 形, ㄷ 形表示雷聲.”

26) (東漢)許慎, 徐秀琴 주편, 『圖解《說文解字》: 畫說漢字』, 北京聯合出版公司, 2022, 204쪽: “在金文中, 原來的圓圈演變為車輪形, 更突出強調了雷聲之巨大.”

27) 『說文解字』: “雷, 陰陽薄動雷雨, 生物者也. 從雨, 𩇛象回轉形.”

## 5. 금문과 전서에 보이는 경우

다음의 예는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고, 금문과 전서에 불성문이 보이는 경우이다.

### 1) 主(주)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主		𤇑	𤇑	主
不成文 →不成文	缺	𤇑(ㄹ, 주) + 𤇑(상형성不成文)	𤇑(ㄹ, 심지)	ㄹ(심지 주)
		𤇑(상형성不成文) 불뚱	𤇑(상형성不成文) 등잔과 받침대	

금문: 𤇑 = 𤇑(ㄹ, 주) + 𤇑(불뚱, 상형성不成文)

『중문형음의종합대사전』에서는 “𤇑는 ‘심지’를 나타내며, 작은 두 점(ㄹ)은 ‘불뚱’을 나타내거나 혹은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깜부기불’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sup>28)</sup>

전서: 𤇑 = 𤇑(ㄹ, 주) + 𤇑(상형성不成文)

『說文解字』에서는 “主는 등잔 안에 있는 심지라는 뜻이다. 자형은 𤇑와 𤇑(ㄹ,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𤇑(ㄹ, 주)는 또한 聲符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9)</sup> 𤇑는 ‘등잔과 받침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형성不成文이다.

금문과 전서 모두 形聲字이지만, 불성문 부분이 𤇑(불뚱)에서 𤇑(등잔과 받

28) 高樹藩, 『中文形音意綜合大字典』, 中華書局出版, 1989, 21쪽: “其大之 𤇑 卽火柱, 其小只兩 𤇑 卽火花, 或火未滅之火燼”

29) 『說文解字』: “主, 鏡中火主也. 從 𤇑, 象形. 從 ㄹ, 亦聲.”



침대)로 변화하였다.

## 2) 創(창)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創			①	②	③	創
不成文 →成文	缺				×	
		상형성不成文	상형성不成文	지사성不成文	成文(聲符) 倉	

금문: = (刀, 도) + (칼에 묻은 피, 상형성不成文)

『한자연변500례』에서는 “본래 지사자이다. 칼날에 흠집이 두 곳에 있거나, 피 두 방울이 있다”고 하였다.<sup>30)</sup> 엄밀하게 말하면, 흠집이나 핏방울이 칼날에 한 곳, 칼등에 한 곳이 있는 것이다. 또 『圖解《說文解字》：畫說漢字』에서는 “금문 創자는 ‘다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세로획 두 개(4)는 손과 발에 난 상처를 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주장은 사람이 칼에 찔린 후에 칼에 묻은 핏방울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sup>31)</sup> 두 견해를 살펴본 결과, “칼날에 묻은 피”로 ‘상처’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전서: ① = (칼 도) + (상형성不成文)  
 ② = (칼날, 인) + (지사성不成文)  
 ③ = (刀, 도) + (倉, 聲符)

30) 李樂毅, 『漢字演變五百例·續篇』,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0년, 53쪽: “原是指事字; 刀刀處有兩條傷痕或兩滴血液.”

31) (東漢)許慎, 徐秀琴 주편, 『圖解《說文解字》：畫說漢字』, 北京聯合出版公司, 2022, 62쪽: “金文中, ‘創’的字形就像是一個受了傷躺在地上的人. 兩條小豎代表手上和腳上的傷口. 另一種說法認為, 這就像是人被刀刺傷之後, 沾在刀上的血滴.”

『說文解字』에서는 “𠂔(刃)은 ‘상처’라는 뜻이다. 刃(인)과 一로 구성되어 있다. 𠂔은 刃(창)의 흑체(이체자)이다. 形符는 刀이고 聲符는 倉이다”라고 하였다.<sup>32)</sup> “從一”이라고 하였지만, 전서 자형은 𠂔로 一(일)자가 아니고 ‘\’이 두 개다. 𠂔의 자형만 보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칼날에 묻은 피”로 ‘상처’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형성不成文이라고 할 수 있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전서를 𠂔로 쓰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殺傷은 刀(칼날)에서 기인하다”라고 하고,<sup>33)</sup> “大徐本에서는 전서를 𠂔으로 쓰고, 小徐本에서는 전서를 𠂔으로 썼다. 그러나 자형구조는 刃(인)과 一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야 한다. ‘一’은 ‘상처’의 모양으로, 칼날이 들어간 곳이다”라고 설명하였다.<sup>34)</sup> 刃(인) 위에 \이 ‘상처의 모양’이라면, 추상적인 모양이므로 지사성不成文이라고 할 수 있다.

금문과 전서의 상형성不成文(칼에 묻은 피)이나 전서의 지사성不成文(칼날이 들어간 곳)은 결국 成文(聲符) 倉(창)으로 대체되었다.

## 6. 결론

본고는 갑골문이나 금문의 不成文이 전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10건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형성不成文이 義符로 바뀐 예가 2건[糞(𠂔→糞), 祭(𠂔→祭)], 聲符로 바뀐 예가 3건[稻(𠂔→稻), 電(𠂔→電), 創(𠂔→創)]이 있었다.

32) 『說文解字』: “𠂔, 傷也. 從刃從一. 𠂔, 或從刀, 倉聲也.”

33) 段玉裁, 『說文解字注』: “凡殺傷必以刃.”

34) 段玉裁, 『說文解字注』: “按鉉本篆作 𠂔, 錯本篆作 𠂔, 今按當是從刃從一. 一者, 傷之象, 剝之所入也.”

이상의 예에서 義符나 聲符는 자형에서의 역할이 좀 다를 뿐, 모두 成文으로 바뀐 예이다. 그 외에 다른 상형성不成文으로 변한 예가 2건[栗(栗→栗), 主(主→主)], 소실된 예가 1건[利(利 - 利→利)]이 있었다.

지사성不成文은 총 2건으로 상형성不成文으로 바뀐 예가 1건이고[雷(雷→雷)], 갑골문부터 지사성不成文으로 그대로 유지된 예가 1건[鼎(鼎→鼎)]이 있었다. 이로 보아, 상형성不成文은 대부분 成文으로 바뀌어 그 뜻을 분명히 밝혔고, 지사성不成文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 不成文 상태로 유지되었다.

갑골문에서 전서까지의 자형 변천 과정은 일반적으로 상형성이 점점 사라져 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형성不成文보다는 成文인 義符나 聲符로 대체하는 것이 뜻을 보다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자형의 簡化라는 측면에서 보면, 利자의 경우 갑골문 利는 “흙(土)에서 자라난 벼(禾) 한 단을 손(又)으로 움켜잡고 칼(刀)로 베는 모습”에서 전서 利자로 簡化됨에 따라, 그 본의도 利(이득)이라는 뜻에서 『說文解字』의 분석처럼 “날카롭다(銛也)”라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변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禾(禾)와 刀(刀)로 구성된 전서와 해서체 자형만 보면 ‘벼(禾)를 잘 벨만큼 칼(刀)이 날카롭다(예리하다)’라는 뜻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편폭의 제한으로 극소수의 字例에서 얻은 결론이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용례를 더 많이 확보하고 한층 더 깊게 연구하여야, 객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參考文獻

-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中華書局出版, 1989.
- 裘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出版, 2013.
- 裘錫圭, 이홍진 역, 『중국문자학』, 신아사, 2001.
- 김은희, 「甲骨文 ‘잉여기호(점·필선)’의 변화와 『說文解字』의 字形 재분석」, 『중국어언어연구』 제29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09.
-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8.
- 王寧, 홍영희 역, 『한자구형학강좌』, 제이앤씨, 2011.
- 王寧, 홍영희 역, 『한자구형학개론』, 한국문화사, 2020.
- 李樂毅, 『漢字演變五百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3.
- 진광호, 『문자학개론』, 민족문화, 1997.
- 최영애, 『漢字學講義』, 통나무, 2000.
- 許慎(東漢) 著, 徐秀琴 주편, 『圖解《說文解字》: 畫說漢字』, 北京聯合出版公司, 2022.
- 홍영희, 「육서법과 구형학이론의 구형모델비교」, 『중국어학회』, 제33권, 중국학연구회, 2005.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s of Temporary Grapheme in Chinese Characters

Oh, Jung Kyun · Kang, Hye Keun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Form of Chinese characters from Oracle Bone Inscriptions until now.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in the Form of Chinese characters from Oracle Bone Inscriptions to Seal Script, focusing on Temporary Grapheme(不成文). Temporary Grapheme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types. (1)Temporary Pictogram(象形符號): Graphic Symbols of the shape of specific things (2)Temporary Indicator(指事符號): Indicative symbols which express Abstract concepts or Forms that are difficult to imitate in concrete. In this article, Temporary Grapheme in the compound pictographs(合體象形) such as 果, 胃 and 眉 or the compound Indicators(合體指事) such as 本, 末 and 亦 were almost all maintains an Temporary Grapheme state from Oracle Bone Script to Seal Script, and is excluded from the analysis object. In addition, the analysis of 10 cases showed that from Oracle Bone Script to Seal Script, Temporary Pictogram were replaced by Ideo/Phonic Grapheme(表意/表音字素) or added with Phonetic Element(聲符). The reason seems to be because it can express the meaning more clearly.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Simplific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case of 利 character, as the character is simplified from Oracle Bone Script  [the image of holding a sheaf of rice(禾) grown from the soil(土) with a hand(又) and cutting it with a knife(刀)] to Seal Script , there are cases where the original meaning is also misunderstood or changed from the “benefit(利益)” to “sharp(鋒利)” like the analysis of 『ShuoWen JieZi』.

**Key words** : Temporary Grapheme, Temporary Pictogram, Temporary Indicator, Forms of Chinese characters, Changes

투고일: 2024. 1. 10. / 심사일: 2024. 1. 15.~ 2024. 2. 15. / 게재확정일: 2024. 2. 20.

